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5월 24일 (제 1359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초록은 동색이라

초록은 동색(同色)이다. 풀빛과 녹색이 같은 색이라는 뜻이다.

나는 '조급과 무리'도 동색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국이 같기에 하는 말이다. 조급은 마음이 너무 앞서 넘어지고, 무리는 분량이 넘쳐서 넘어지니 동색이라 할 밖에. 결국 조급이나 무리는 한 뿌리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 조급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혼자서 재판하려고 했던 것이 무리다. 그런데 이거 이거는. 조급하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는 사람은 이미 조급한 상태인 것을. 고로 동색이라!

나는 목회 41년 동안 조급해서 넘어진 자들도, 무리해서 넘어진 자들도 많이 보았다. 어떤 자는 '열심'이 조급하고 무리하는 것이라 착각하는데, No!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 말씀하셨고, 옛 선전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말했다. 또 하나, 우월감과 열등감 역시 동색이다. 하나는 자신을 너무 높이고,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으로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역시 뿌리는 하나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는 말씀대로 넘어지고, 열등감은 모든 사고의 원인으로 결국 멸망하니 동색이라 할 밖에.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며 자신을 높였고, 골리앗은 월등한 체격과 체력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드러냈지만, 결국 둘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열등감도 문제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는 말이 둔하여 못 합니다.'라고 했다. 기드온 역시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사용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4:6).

우리, 조급 대신 인내를, 무리 대신 지혜를, 우월감 대신 겸손을, 열등감 대신 정체성을 갖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 인생은 운명(運命)이 아니다

"대구예수전도집회를 해야지!"라는 한송이 목사의 생각이 이 집회를 이끈 것입니다. 만약 한송이 목사가 집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여기 성도분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팔자나 운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언어로 만드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 대구예수중심교회 담임 한송이 목사님의 살신성인의 마음, 대구 성도들의 '반드시 이 집회를 성공하리라'는 하나님 생각의 엑스코 컨벤션홀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인산인해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준비한 의자조차 모두 소진하여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대구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한송이 목사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 돈을 주고 이 컨벤션홀을 빌린 것은 이 건물의 법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장소를 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걱정과 근심, 아픔, 슬픔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특히 총회장 목사님은 자주 회중석으로 내려가셔서 이날 처음 참석한 새신자들과 소통하시며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알기 쉬운 말로 설교하셨듯이, 직

일이 없다'(막9:2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목사님은 이날 집회 중간에 다시 한번 해외집회 영상을 보여주시며 처음 참석한 새신자들의 생각을 바꾸어주셨다.

"여기 영상에 나온 사람이 저 맞지요? 흑인, 백인, 황인,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병을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소경, 절름발이 등도 예수를 믿고 시인했더니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두 다리도 튼튼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내 생각과 언어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팔자 타령하는 마



2026 대구예수전도집회(5월 15일 대구엑스코 컨벤션홀)

님의 지휘 아래 3월 1일부터 집회 전날인 5월 14일까지, 75일간 매일 한마음 한뜻으로 집회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 합심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필리핀 세부 집회를 마치시고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의 작정기도 마지막 날, 교회를 방문하시어 성도들을 격려하며 집회를 준비하셨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설계도를 말하고

집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며 참여형 설교를 진행하셨다. "이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라!' 할머니 올해 연세가 몇이세요? 할머니가 여기 오늘 오겠다는 생각이 이 집회에 참석하신 것이지요? 맞아요,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것은 내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운동도 해서 아픈데 없이 정정하신 것입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살겠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귀의 생각과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잘 살아!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120세, 150세까지 살 거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고, 부정의 생각일랑 추방하십시오. 생각을 지키고 말을 바꾸며 천국 생활하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며, 매일 전도하며, 전심전력한 대구예수중심교회 성도들, 대구 예수전도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새벽부터 출발해 참석한 성도들, 컨벤션홀 엘리베이터와 길목 이곳저곳에서 안내하며 헌신 봉사해준 젊은이들 등, 이날의 집회 성공을 위해 애써준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헌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집회에 몰려오는 성도들



용신할 틈 없이 가득찬 엑스코 컨벤션홀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7)

##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말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나요? 그들을 막는 옆의 나라들이었습니까? 사주팔자가 막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과 말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부정이 전염되어 부정적인 말을 뱉은 자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뿌렸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생각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말(言)이란 씨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아름답고 귀한 말도, 천한 말도 있습니다.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긍정적인 말을 골라서 뿌리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부정적인 말을 골라 뿌리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고, 악한 말을 골라 뿌리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가 배추씨를 뿌렸는데 사과가 나뉘나요? 그럴 리 없지요. 성경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딱 못 박아 말씀하셨고(마7:16),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말씀 하셨습니다.

###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도 같이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의 운명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영생을 얻어 낙원에 갔고, 다른 강도는 영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까요? 사주팔자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운명이 갈린 겁니다. 좌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우편의 강도는 좌편의 강도를 꾸짖으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운명이 기구해서 이 모양이 꼴로 산 줄 아셨지요? 아닙니다.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뿌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안 된다', '죽겠다', '망할 놈

의 인생', '힘들어 죽겠다', '나는 안 돼', '내 팔자에'... 이런 말을 많이 뿌렸기에 그대로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달았으니 운명을 바꿔야지요. 어떻게 하면 운명이 바뀔까요? 이제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인생이 펴요, 인생이 멋지게 돼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린다니깐요.

농부가 해충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농사를 접나요? 다 뽑아내고 밭을 갈고 씨를 다시 뿌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1모작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 2모작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작, 3모작, 4모작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뽑아버리고 다시 좋은 씨를 뿌리면 대풍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시23:1~2)라고 말할 때 좋은 상황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고 싶다'고 뿌리지 않았습니.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지 없이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사울을 이어 왕이 되고 늙어서까지 부귀가 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1모작은 힘들었지만, 2모작은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말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운명에는 귀가 있어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와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럼 갈

라서게 해야지.' 해서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못 살겠다'고 말한 내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대로 행하신 것뿐입니다(민14:28).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4~15).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

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을 바꾸는 근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죽어도 못 보는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마귀의 1차 공격 목표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먼저 생각 속에 부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들게 하고, 그대로 말의 씨를 심게 합니다. 그 씨가 자라 결국 유다를 보세요. 마귀는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13:2). 그 생각의 결과로 그는 예수를 팔고 그 죄책감에 결국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마귀는 '난 끝났다', '포기해라', '과거를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럴 때 그것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

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말한 것입니다.

### 천국과 지옥도 네 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키고 가르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혹 세상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없고, 안 되고, 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주머니에서 부정적인 말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사화복 중에서 굳이 화(禍)를 뿌리면서, 복이 왜 안 맺느냐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바뀌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곧 생각을 새롭게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한나는 무자한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도 어미가 되어 보리라, 나도 아들을 얻고 말리라.' 그의 생각이 바뀌자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사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말이 바뀌면 하나님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정도야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41년을 뿌렸습니다. 사실 그 긴 세월 동안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만,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뿌렸더니 정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직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아니면 후진할 것이냐, 이 모든 선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말로 시인할 때 내세까지 좌우할진대, 말로 현재 또한 바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 주님의 목소리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생활이 아니며, 또한 습관도 아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내 영혼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면 유익이 많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4:8).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주장과 고집과 사상이 정상적이라고 우겨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 이론과 지식 등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자들이다. 그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는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다. 모세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명령대로 따를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은 물을 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였다.

노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 때 주님의 목소리는 그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에 계속 들려왔다.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방주를

완성한 후에 마침내 그의 가족은 홍수로 부터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에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이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바울이 “주여, 누 시오니까?” 하고 묻자,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다(행9:4~5).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적과 상관이 없다.

마르다는 주님이 나흘 전에 만 오셨어도 올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순종의 행위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주님의 목소리에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의 정도가 달라진다. 성도는 모든 기회를 주님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려 하고 그 목소리에 영혼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요일4:5~6).

**신기류 목사**

:: 성경에세이 ::

# 바닷물이 돼라

여보게!  
바닷물은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받아들여 다 정화해내지. 그것은 2~3%의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 이상이지. 2%의 바닷물이 온갖 더러운 물을 정화할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30%가 넘는 크리스천으로 인해 아주 맑게 정화되어야 옳지 않겠나. 그러나 현주소는 어떤가. 이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세상이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겨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거라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여보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네. 그 첫번째 이유는 소금은 짜야 하는데, 세상은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소금도 싱겁게 만들려고 온갖 것을 다 넣지.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온갖 것이 들어와 소금이 제맛을 잃었

다네. 세상 입맛에 맞추느라 그런 거야. 세상 지식과 경험들로 말씀이 싱거워지고 있으니 어찌 그것을 소금이라 할 수 있을까. 둘째는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해서야. 소금이 있을 곳은 썩어져 가는 곳이야. 말인즉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거지. 그곳에 소금을 쳐서 부패방지를 해야 하건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대네.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문쳐 살며, 세상을 향해 “말세야~”라고 비평만 하고 있지.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네.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라고 찬양은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등지를 틀고 있으면 되겠나. 세상이 너무 부패했다나.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한 게지. 셋째,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녹지 않아서야. 소금이 아무리 짜도 녹지 않으면 절대 짠맛을 낼 수 없지. 교회에 사랑과 희생이 없네. 교회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네. 사랑을 실천해야 하네. 그럴 때 세상이 간이 맞아 맛있게 될 것이야.

소금이야말로 최고의 조미료가 아닌가. 우리는 맛없는 세상, 부패한 세상을 쳐낼 소금임을 잊지 말게.

**봉우**

:: 성경에세이 ::

# 사막에서 진주라니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도 다 떨어져 그는 며칠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결사적으로 걸었다.

마침내 사막 가운데서 작은 천막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살았구나 생각한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간 것 같았다. 그는 혹시 물병에 물이라도, 혹 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모래에 묻힌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주머니를 헤쳐서 열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좋고 큰 진주알이었다. 천막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 하나가 귀한 보석을 잊고 그냥 간 것 같다. 그 사람은 손에 쥐었던 진주를 모래에 던지며 외쳤다.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내게 지금 진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 사람은 맥이 풀려 사막에 누웠고, 그렇게 죽어갔다.

사막에서 진주는 무용지물이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보석이며, 생명이며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는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죄로 인하여 영멸될 인간들에게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하시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눅4:18).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신은 사막에서 주운 진주와 같다. 예수를 믿어라.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 르호봇 신앙

작은 가게를 오래 지켜온 사람이 있었다. 장사가 잘되자 바로 옆에 더 크고 화려한 가게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저 가게는 끝이야.” 하지만 그 주인은 싸우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늘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손님을 정성껏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결국 큰 가게는 문을 닫았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가게를 키우는 건 내 일이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는 건 내 힘이 아니더라.”

이삭은 우물을 팠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 고 다투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섹’이라 불렀다. 다툼의 자리였다. 두 번째 우물은 ‘싯나’, 대적의 자리였다. 보통이라면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 그는 그냥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다. 마침내 다툼이 없는 곳에서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르호봇 신앙이다(창26:12~22).

이삭은 우물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

심을 믿었다. 그래서 빼앗겨도 무너지지 않았고, 물러서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르호봇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다. 르호봇은 마음이 넓어지는 믿음이다.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후에야 우물이 나온다.

순서가 중요하다. 우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온다(요삼1:2).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다(마6:33).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혹시 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잃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기 때문이다. 르호봇은 싸워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다. 르호봇 신앙이란 억지로 지키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주실 것을 믿고 물러설 줄 아는 믿음이다.

**임택함 목사**

:: 간중 ::

:: 참된 깨달음 ::

# 하늘의 문을 여는 온전한 십일조



최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는 말씀을 더욱 강력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예수중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떼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어느 순간부터 십일조를 통해 제 수입이 공개된다는 생각 때문에 십일조나 헌금을 할 때 현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

다. 그러워할 필요가 없다. 청지기로서 작은 물질이라도 충성되게 관리한다면 더 큰 것도 맡겨주실 것이다. 현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액수가 작아서 누군가 볼까 부끄러워서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충성된 마음을 담아 당당하게 이름을 써서 드러라."

얼마 후, 기도 중에 선배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십일조에 이름을 쓰면 혹시 사람들이 나의 수입을 알게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액수가 적지는 않을까?'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부끄러워하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겉으로만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부끄러워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많은 적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일터를 예비해주신 것과 일할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이후 단돈 천 원이든, 백 원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물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적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공간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에 따라 용돈을 주신 적도 있었고, 일터의 사장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월급을 올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춘계산상집회 마지막 예배가 끝나자마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하나님의 딸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알아보려 애썼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진심을 담아서 십일조를 드린 이후, 축복의 속도가 현저히 다름을 실감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롬11:36),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신8:18). 앞으로도 온전한 십일조를 주님의 창고에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말3:10)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하는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마24:45)로서 감사와 낮아짐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정주선

## 어릴 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배움, 더 넓은 기회를 주고 싶어 애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이 안에 세워져야 할 것은 성취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일지 모른다.

어릴 적 마음에 심긴 말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아기에 들은 짧은 성경 구절, 잠들기 전 손을 모으고 드린 기도,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말씀으로 조용히 붙잡아 준 한마디는 시간이 흘러도 아이 안에 오래 남아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잠22:6).

돌이켜 보면, 내 사춘기 시절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게 한 것도 결국 말씀이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힘들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실제로 살아내야 할 기준이 되었다. 특별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나며 들었던 설교의 가르침들은 지금도 내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말씀,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경고의 말씀,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생각이 결국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권면은 내 안에서 오래도록 기준이 되어 주었다. 순간의 감정에 흔들릴 때도,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도, 그때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유아기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믿게 된다. 성경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며,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삶의 방향을 세우는 힘이 됨을 보여준다.

유아기 말씀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할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좋고,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괜찮다. 그렇게 들려준 말씀이 언젠가 아이의 신앙이 되고, 신앙 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오늘 심어준 말씀이 내일의 아이들의 인생을 붙드는 능력과 힘이 되고 방향이 될 것이다.

양은정 생도

##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집회 6월 3일(수)~12일(금)

:: 동행하는 삶 ::

###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다.

얼마 전, 중고등부 학부모 초청 예배에 다녀왔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은혜로운 설교와 섬김 등에 이번에도 역시나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청장년부에서도 매달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의 명설교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나와 가까이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삶이 힘들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위로와 위안을 얻는다.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

을지 상상도 안 된다.

한때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 보면 주눅대며 얼버무리던 시절이 있었다.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 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혹여 누가 이단이니 시비를 걸 때면 그럴 때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가르치신다고.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예수중심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이다. 다른 교회가 전하는 예수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똑같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동일한 말씀으로 오직 성경 한 권만을 전한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몸소 느껴진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마

음이 든다.

총회장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할까?'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마음이 들며 뭉클해진다. 이런 교회에 다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악한 세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연려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매일 쫓아내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는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자!

정효경 집사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